에는 韓國陶磁小史가 있다)

◎ 南大門、石窟庵補修座談會

四月二十一日 午後二時부터 朝鮮호텔에서 韓國日報主體로 開催되었는데 出席者는 金庠基 金載元 金元龍 權寧大 韓戊淑 秦弘燮 芮庸海 黃壽永(四月三十日附同紙揭載)

◎ 梨大史學會講演會

四月二十四日 午後三時—四時半 黃壽永氏「韓國石佛像의 新例」(幻燈使用) 同大學圖書館視聽覺教室

◎ 歷史學報十七輯(東濱金庠基先生還曆紀念)所載考古美術論文

金元龍 : 岩寺里遺蹟의 土器·石器
秦弘燮 : 癸酉銘三尊千佛碑像에 對하여
黃壽永 : 忠南泰安의 磨崖三尊佛像

南大門通信(第一信)

申 榮 勳

今年 二月 十八日 木部解體와 石築의 試掘이 있은 후 文敎部 工事 直營方針에 依하여 從事者 全員이 改編되었다。새로 組織된 技術陣은 總監督으로 秦弘燮氏 技術監督은 林泉氏와 金正基氏 技術囑託 楊澈洙氏 等으로 構成되고 重修事務所長으로는 崔鳳朝氏가 任命되었다。

四月 九日부터 工事에 着手한 新陣容은 가장 時急하고도 重要한 資材인 木材의 基礎資料를 蒐集하기 爲하여 不要材調査에 臨하였다。再使用材와 代替材를 區分하는 基本方針은 다음과 같이 決定하였다。

㈠ 椽木은 破裂·腐傷材만 除外하고는 되도록 全部를 再使用한다。特히 扇子椽은 처마曲線과에 가장 긴밀한 關係가 있으니 可及的 使用한다。

㈡ 道里는 甚曲되거나 大破가 없으면 再使用한다。特히 二四長尺物의 新材는 乾燥度와 耐强問題를 考慮하여 腐損材라도 補强하여 堅固하면 再使用한다。

㈢ 왕찌는 二個中 一個만이라도 完存하면 補强後 再使用한다。

㈣ 春舌는 大部分 再使用하고 사래는 破損이 甚한으로 新材로 交替한다。

㈤ 隅高柱는 二個만 再使用한다。

㈥ 長舌는 內曲되거나 甚한 破損이 없으면 再使用한다。但 짧부리가 完全해야 한다。等等의 規準으로 調査를 完了하여본 結果 大略 三五、〇〇〇餘才가 要代替材로 區分되었다。一九六一年 九月 四日字로 提出한 南大門重修에 必要한 材木所要量 算出概要는 趙元載氏가 八三、六〇〇才、林培根氏는 五五、〇〇九才로 되어 있는데 林培根氏는 三〇、〇〇〇餘才의 餘裕材를 보고 있었다。算出概要는 算出者의 基本態度에 依하여 左右되는 것이나 南大門의 總材積은 木部가 十三萬五千才로 推算되고 있다。

石窟庵通信(四)

鄭 明 鎬

今年度 工程中의 하나인 現 庵前方의 田地發掘을 四月二十二日부터 監督官 黃壽永氏와 洪思俊氏와 金正基氏의 參加로 着手하였다。發掘地로 選定한 곳은 二個處로서 其一은 現庵의 土築臺下와 接한 밭의 거의 中央으로서 東南方으로 幅十尺 長五十八尺되는『트렌치』를 넣었다。他一은 庵의 東方 約 六十尺地點 田地인 바(現李朝浮屠田南方 幅 五尺 長 六十二尺되는『트렌치』로 試掘하던 中 上端으로부터 五十五尺되는 下側表土의 七寸下에서 長 三尺三寸 幅 二尺二寸되는 花崗石 一片이 南北으로 길게 놓여 있는 것을 發見하였다。이를 따라『트렌치』를 東北東方으로 延長하여 본즉 石列이 露出되었으며 또 上端에서 十尺地點 表土下 三尺九寸五分되는 곳에서 礎石으로 推定되는 遺構가 發見되고 當時의 土壇을 構成키 爲한 石築이 漸次 露出되고 建築址로 推定됨에 따라 此 遺構와 延한『트렌치』로 東北東方으로 擴張하였다。그리하여 礎石을 缺失한 礎石址가 發見되었으며 이에 따라 相對方으로 또 하나의 延續『트렌치』를 파서 前述한 遺構間의 距離와 同一한 位置에 또 하나의 礎石이 發見되었다。또한 本『트렌치』를 上方으로 延長 發掘中 처음 礎石에서 上側 七尺八寸 地點에 또 하나의 礎石이 發見되었으며 上記 土壇石 前方에서 金銅製의 屋形裝飾小品 一點을 發見하였고 高麗時代의 암막새 古瓦片 一點과 숫막

새瓦一點을 各各 同一層位에서 發見하였다。 또한 浮屠의 相輪으로 推定되는 八角形石材中央에 深一寸五分의 穿孔) 一點을 發見하였다。 前者『트렌치』에서는 注目될만한 遺構는 發見되지 않고 이곳으로 溪川이 흘러가던 溪川址가 發見되었으며 이『트렌치』를 土築台下까지 掘下하여 骨壺片과 土器及磁器片과 古瓦片 多數가 出土되었다。(그中 암막새瓦片 一點과 羅代부터 李朝에 屬하는 숫막새古瓦片 四種을 採取하였다)

二、石窟背後에서 噴出되는 물을 處理하기 위하여『돔』의 西南方과 北側으로 깊은 新排水路를 設置中이며『돔』外郭에 防水保溫用으로 使用된 볏짚으로 엮은『영계』를 除去하고 屋蓋工事를 五月 十日부터 着工할 豫定이고 窟內의 스팀 保溫裝置는 撤去하였다。

三、參觀外國人은 如左

五月三日 新嘉波大學 中文部主任 賀光中敎授來訪

五月四日 駐韓美大使 버—커夫妻와 二名來訪

五月五日 白耳義의 HUBERT DURT氏 來訪(現在 日本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에서 留學中인 佛敎學者)

在歐 崔淳雨氏 通信

獨逸展示를 끝내고 四月下旬 墺地利로 向한 同氏로부터 本誌幹事 鄭永鎬氏에게 繪葉書(展示中인 謙齋의 仁王霽色圖)를 보내왔는데 글월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보내주신 考古美術 잘 받았읍니다。 手苦하신 자취가 歷歷해서 感謝不已입니다。 오랫동안 原稿보내지 못한 것 부끄럽게 생각하오며 서울에 돌아가면 그동안 못했던 몫까지 합해서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澗松追悼號를 이곳에서 이렇게 받게 될줄은——새로운 슬픔이 마음을 어둡게 해줍니다。 그동안 나온 考古美術과 刊行物을 저의몫으로 모아두시면 감사하겠읍니다。 四月 十六日」

◎ 大學博物館協會刊「古文化」

第一輯의 論文(五月 十日 發行)

金斗鍾 : 高麗板本에 對하여

金良善 : 再考를 要하는 磨製石劍의 形式分類와 祖型考定의 問題

金廷學 : 廣州明逸里住居址發掘略報告

資料

蔣奎緖 : 高麗白磁 丁仲煥 : 大安七年銘高麗禁口에 對하여

尹容鎭 : 法水寺址와 遺物

◎ 慶大博物館刊「若木古墳調査報告」(報文一一頁 圖版一四葉)

一九六〇年九月에 있었던 慶北 漆谷郡 若木面 福星洞 所在古墳一基(大甕塚)의 發掘報告書로서 執筆은 同館의 崔鍾完 尹容鎭 兩氏

宋板別本寶篋印陀羅尼經

趙 明 基

(二行十字 一字 約五㎜ 平方의 細字 高 六·七㎝ 全長 二一〇㎝ 卷子本一軸 宋太祖八年刊)

南方吳越은 杭州에 都邑하여 晩唐으로부터 約 八十有餘年동안 錢氏一族의 諸王相이 繼承하여 治世를 하고 모두 佛敎를 信奉하여 造寺建塔에 盡力하였다。 特히 忠懿王錢俶은 五代에 있어서 第一의 佛敎篤信者라고 하는 바이다。 王의 事蹟中 가장 高名한 것은 阿育王의 故事에 模倣하여 八萬四千의 金銅塔을 造成하여 領內各地에 安置하고 또 其他塔塔等도 建立하여 그들 塔中에「寶篋印陀羅尼經」을 納入奉安하였다。 王이 建立한 佛寺는 極히 많아서 近世佛敎의 中心地가 되는 杭州西湖附近의 大小數百의 寺院과 塔婆는 거의 이 時代에 創建한 것이며 그 中 雷峰塔같은 것은 多層 塼築인 바 宏壯한 것이다。 그런데 民國十七年頃(一九二八) 杭州에 있는 塼塔이 崩壞되어 그 塔의 塼中에서 이 經이 出土한 것이다。